

# 도로 위 승용차 10대중 1대는 수입차

국내 도로를 달리는 수입 승용차가 처음으로 200만대를 돌파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7개월 연속으로 판매 1위에 오르며 수입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등록통계 월보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200만4461대로 집계됐다.

이는 국산차를 포함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1842만4049대 중 10.9%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로 위 승용차 10대 중 1대는 수입차란 얘기다.

브랜드별로는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BMW가 38만9566대로 집계돼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수입차로 꼽혔다. 전체 등록된 수입차 중 BMW의 비중은 19.1%다.

2위는 경쟁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로 38만2360대(18.8%)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차 이미지에 최근 대중성까지 갖추면서 소비자들의

7월 등록 누계 200만4461대  
전체 등록 10.9% 차지  
벤츠, 7개월 연속 판매 1위  
BMW '불 자동차'로 이미지 타격  
향후 판매량 영향 전망

선호도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1·2위 간 격차가 7206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순위 변동에 눈길이 쏠린다.

벤츠는 세단 E클래스 기본형을 기준 'E200'에서 E3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라인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BMW가 최근 주행 중 엔진 화재사고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점 등도 향후 판매

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위는 폭스바겐(17만4557대), 4위는 아우디(16만1528대), 5위는 렉서스(10만1046대), 6~10위는 차례대로 포드(8만3480대), 르노삼성(7만천900대, QM3 등 르노삼성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델만 집계한 것), 혼다(7만4814대), 크라이슬러(6만2612대), 미니(6만720대)가 차지했다.

1~4위를 독일차 브랜드가 휩쓸면서 국내에서 독일차의 인기가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등 4개 독일차 브랜드의 점유율 합계는 54.4%였다.

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7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승용·승합·화물 트럭 등을 포함해 모두 203만8039대로 파악됐다.

한편, 국산 승용차 등록대수를 브랜드별

로 보면 현대차가 735만6166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507만6249대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GM이

156만4904대, 르노삼성이 150만5906대, 쌍용이 73만5100대 순이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벤츠 200'

## 이주의 신차

### '현대 제네시스 2019년형 G80' 지능형 안전기술 탑재

지능형 안전기술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한 '2019년형 G80'이 출시됐다.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인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한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기존 모델에 비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자 주차 경고 ▲전동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됐다.

또 처음으로 최고급 안전 사양인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도 추가로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가솔린 3.3 모델이 4899-5969만원 ▲디젤 2.2 모델이 5183-5861만원 ▲가솔린 3.8 모델이 5272-7098만원 ▲3.3 T-GDi 모델이 6764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떻게 될지 ▲하이빔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됐다.

또 처음으로 최고급 안전 사양인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도 추가로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가솔린 3.3 모델이 4899-5969만원 ▲디젤 2.2 모델이 5183-5861만원 ▲가솔린 3.8 모델이 5272-7098만원 ▲3.3 T-GDi 모델이 6764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아 중시장 전용 KX1' 젊은층 겨냥 디자인·연비 중점

기아차가 중국 전용 도심형 엔트리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KX1' (중국어 이파오)을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27일 기아에 따르면 중국 합자법인 동평위에서 기아(東風悅達汽車)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난징 국제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KX1의 신차 출시 행사를 열었다.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루프 라인(지붕 윤곽선)이 특징이며 실내는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카파 1.4 MPI 엔진에 5단 MT, 6단 AT 변속기를 탑재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변속감과 승차감, 높은 수준의 연비를 제공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루프 라인(지붕 윤곽선)이 특징이며 실내는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카파 1.4 MPI 엔진에 5단 MT, 6단 AT 변속기를 탑재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변속감과 승차감, 높은 수준의 연비를 제공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쌍용 2019 G4 렉스턴' 국내 SUV 첫 손만 대도 문단속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사양을 확대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한 '2019 G4 렉스턴'이 출시됐다.

2019 G4 렉스턴에는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최초로 손을 대기만 하면 도어(차 문)를 열고 잠글 수 있는 '터치센싱 도어'가 적용됐다. 또 내년 9월 시행되는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D를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대폭 저감하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도 장착했다.

운전석 전동식 요추받침대(4방향)가 적용됐으며 2열 팔걸이 트레이(받침대)와 스마트폰 거치가 가능한 컵홀더가 추가됐다.

가격은 ▲럭셔리 3448만원 ▲마제스티 4045만원 ▲헤리티지 4605만원 ▲스페셜 모델인 유라시아 에디션은 3795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운전석 전동식 요추받침대(4방향)가 적용됐으며 2열 팔걸이 트레이(받침대)와 스마트폰 거치가 가능한 컵홀더가 추가됐다.

가격은 ▲럭셔리 3448만원 ▲마제스티 4045만원 ▲헤리티지 4605만원 ▲스페셜 모델인 유라시아 에디션은 3795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입지 좁아지는 디젤

내달부터 배기가스 측정기준 강화... 가격 인상 불가피·판매 제약 가능성

다음달부터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 한층 강화되면서 디젤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강화된 규제를 맞추느라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로 단 차량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정부 인증을 새로 받으면서 모델별로 판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이 국내 모든 중·소형 디젤차에 적용된다.

작년 9월부터 새로 인증받은 디젤차에는 이미 해당 규제가 적용됐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에도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주행 시간과 거리, 평균 속도가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약조건 속에서도 시험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과 같은 기준인 '0.08g/km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통과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새 규제에 맞춰 제조사들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희박질소촉매장치(LNT) 등 기존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외에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투싼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디젤 모델과 올해 초 완전변경(플체인지)이 이뤄진 싼타페 디젤 모델에 SCR을 달았다.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은 단종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저조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생산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쏘렌토와 스포티지, 모하비 등에 이미 SCR을 넣었다. 디젤 세단의 경우 현대차처럼 아직 단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차가 주력인 쌍용차도 최근 SCR을 적용한 G4 렉스턴의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는 등 대부분 차종을 새 규제에 맞게 손봤다.

한국지엠(GM)의 경우 아쿠녹스는 이미 SCR을 단 채 판매되고 있고 최근 연식변경을 거친 트랙스에도 SCR이 추가됐다.

디젤 세단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연말 출시 예정인 말리부 부분변경 모델에는 SCR을 채택한 디젤 엔진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르노삼성은 SM3, SM6, QM3, QM6, 클리오의 디젤 모델에 대해 SCR 장착 없이 LNT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새 규제를 충족시켰다.

수입차업체들도 대부분 디젤 제품군에 SCR을 장착해 순차적으로 인증을 새로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자체가 까다로워진 데다 인증 대상인 차종도 많아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추가로 달리면 차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디젤차의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SCR 장착에 따라 가격이 100만~300만원가량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올가을 수입차를 중심으로 디젤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8월 31일까지 생산했거나 통관한 차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올해 11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줬는데, 수입업체들이 이 기간에 재고를 소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